데스크 시각

국정 리스크 vs 사법 리스크

임동욱
선임기자·이사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지만 민심은 그리 편치 않다. 코로나19의 그늘이 여전한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 등의 여파로 올해 민생 경제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에 고착화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및 경제 환경 등이 국내의 내수 침체, 수출 부진, 부동산 경기 하락, 가계 부채 등과 맞물린다면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서민 가계는 벼랑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세대, 계층, 지역 간의 격차와 갈등이 가팔라지고 배려와 공존의 공동체적 가치도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야 정쟁에 멍드는 민생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은 반목과 갈등을 거듭하면서 민생의 주름살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대결 구도가 펼쳐지고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최소 격차(0.73%포인트, 24만 7077표)로 승부가 갈린 후폭풍으로 증오의 정치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민생은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장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미덥지 못하다. 경제·외교·안보·정치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준비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국정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권 출범 초기인데도 30%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마저도 최근 상승한 수치다. 무엇보다 민생 위기 국면에서 피부에 와 닿는,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은 그리 많지 않다는 평가다. 외교 분야도 불안하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패권 구도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불거진 한미, 한일 정상회담 논란 등은 외교적 역량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안보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7차 핵 실험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판에 무인기까지 휘젓고 다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아예 정례화 된 듯하다.

반면, 맞대응에 나선 우리 군은 미사일 오발, 경전투기 추락 등으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대북 강경 대응 입장을 거듭 밝히며 남북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무적 측면도 답답하다.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협치 부재로 정국은 꼬여만 가고 있다. 3월 전대를 앞둔 여당에서는 민심보다는 '윤심'(윤대통령 의중)만 나부끼는 형국이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가 새해 들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를 내세우며 집권 2년차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민심과의 소통, 야당과의 협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국정 동력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1 야당인 민주당도 나을 게 없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안하면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에 크게 앞서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뒤쳐지는 결과마저 나오고 있다. 대선 및 지방선거 패배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어제 '민생 해법'을 주장하면, 오늘 '방탄 프레임'에 빠지는 형국이다. 여기에 친이계가 사실상 독점한 지도부는 민주당의 역동성에 제동을 걸면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강준만 교수가 지적한 대로 치열한 성찰보다는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구도로 상대를 악마화하는 민주당의 '퇴마 정치'에 민심의 피로감은 가중되고 있다.

시민적 역량 결집 나서야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장기화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 FC 후원금 문제, 변호사비 대납 논란 등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내부 결집과 야당 탄압 구도로는 사법 리스크 및 방탄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대표가 민주당을 넘어 거대한 민심의 중심에 서는 사즉생의 정치적 결단과 투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검찰 출석 이후인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어떤 메시지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고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이처럼 민생 위기 국면에 고착화된 정쟁 구도는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갖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은 오히려 민심의 각성과 결집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의 분열과 반목에 휩쓸리기보다 깨어있는 시민 의식으로 삶의 현장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연대의 지혜로 민심의 역량을 키워 위기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정치 격언처럼 시민이 변하지 않으면 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던 국민적 역량이 거대한 강물처럼 펼쳐져 정쟁의 판을 깨고 그래도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은펜칼럼

아시아문화전당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박홍근
포유건축 대표·건축사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듯 다른 목적으로, 대조적 형태로 지어진 두 건축물이 있다. 서울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다. 그러나 쓰임새와 시민들의 인식도는 여간 다르지 않다. 하나는 서울에서 누구나 꼭 가봐야 할 DDP가 되었고, 다른 하나는 지역의 택시 기사분들도 어떤 건물인 잘 모르는 ACC가 되었다.

ACC는 2015년에 개관했다. 옛 전남도청을 포함한 주변 지역, 고려시대 광주읍성의 유허가 있던 부지에 완성되었다. 어려운 부지 조건과 기존 건물 유지, 도심 재생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난해한 숙제를 잘 해결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재미교포 건축가 우규승 님이 잘 풀어 주었다. 옛 전남도청을 돋보이게 하고 모든 시설을 그라운드 제로 아래로 배치하며 옥상은 '빛의 숲'으로 꾸몄다. 넓은 도심 숲은 낮이고 밤이고 이용하기 좋다. 대신 큰 시설이지만 지면 아래로 내려간 건축물을 주변에서 잘 인식되지 않는다. 어떤 건물이 ACC인지 많은 사람이 모른다.

공간의 핵심 시설인 지하의 문화광장은 지상의 민주광장과 자연스레 연결되어야 하는데, 옛 전남도청 별관을 존치해야 한다는 논란 속에 가로막혀 어정쩡하게 완공되었다. 개관 후엔 옛 전남도청 복원 이슈 속에 유일하게 지상에 있는 민주평화교류원과 방문자센터를 철거할 예정이다. ACC를 작동하는 5개 기관 중 오직 지상에 있는 부분이 사라진다. 그나마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월도 철거하기로 했다. 감동을 줄 요소들이 제거되고 있다. 택시 기사분들도 잘 모른다는 ACC의 운명인가 보다.

DDP는 2014년에 완공되었다. 옛 동대문운동장이 있었던 터이고 서울 성곽길이 놓였던 곳에 지어졌다. 영국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설계한 것으로 우주선을 닮았느니, 신기한 형태라느니, 정체성이 없다느니 등등 시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엇갈린 평가를 받았었다. 주변과 조화가 아닌 대비, 직선이 아닌 자연스러운 곡선, 자신을 낮추지 않고 들이대는 형태는 ACC와 다른 디자인 전략이다.

이런 디자인 전략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건축물, 방향과 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상을 경험하고 보여주는 건축물, 기이한 형상이 배경이 되어 다양한 미디어아트로 변신하는 건축물로 남아 있다. 일부 건축전문가들의 개관 초 혹평 속에서도 시민들의 가보고 싶은 장소가 되었다.

ACC와 DDP는 아주 다른 설계 개념을 가지고 있다. 당연하다. 터의 성격과 역사성이 다르고, 프로그램의 조건과 고객의 요구가 다르고, 설계자와 운영자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건축물이 좋은 것인가? 잘 알려진 건축물이 좋은 건축인가. 존재감은 없어도 튼튼하게 무난히 기능을 수행하는 건축물이 좋은 건축인가. 다양한 경험과 기억을 간직한 기쁨을 주는 건축물이 좋은 건축인가.

건축의 기본이라는 '튼튼함' '편리함' '기쁨'. 이 세 가지 요소는 이미 2천 년 전부터 이야기되었고, 지금도 유효하지만, 이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첫째, 건축은 튼튼해야 한다. 자연 영향으로부터 인간을 지키며 기후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인간이 발명한 최고 중 하나가 '도시'이고, '건축'이라고 한다.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축을 통해 연약한 인간이 자신의 생존 능력을 높이고 문명을 만드는 일이 가능해졌다.

둘째, 건축은 편리해야 한다.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기능은 공간 형상에 맞추어 나름 재해석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란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엔 기능이 형태를 따르기도 하지만…. 편리함이란 절대적이지 않다. 상황에 맞춰 적응도 한다.

셋째, 건축은 기쁨이 있어야 한다. 튼튼함과 편리함만 있어도 건물 기능은 하지만, 기쁨이 없는 건물은 좋은 건축이라고 하기 힘들다. 기쁨이란 무엇인가? 감탄과 감동이다. 온몸으로 경험하고, 가슴에 추억을 품고, 기억하며 다시 가보고 싶은 건축은 '기쁨'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튼튼함, 편리함 그 이상의 단계다.

ACC와 DDP, 두 건물은 어떠한가. 기쁨은 건축물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건축과 사용자 사이의 교감에 의해 생긴다. 그 바탕은 안전하고, 기능에 부합되어야 하지만,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건축에 관계된 사람들의 선택 결과로 만들어진다.

지역에 좋은 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복이다. 그런 복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 갈망하고, 학습하고, 쟁취하여 만들어야 한다. 우리네 지역이 복이 많아야겠다.

기 고

씨앗을 심는 손길

정범종
작가

손이 활기차야 한다. 특히 작가는. 마르케스는 손이 따뜻할 때 글을 쓴다고 했다. '백 년의 고독'을 이기기 위해서는 따뜻한 손이 필요했으리라.

나는 손이 활기차지도록 추자를 손에 쥐고 주무른다. 손안이 지압이 되면서 손이 활기차진다. 머리가 맑아지는 건 덤이다. 추자는 가래나무 열매이다. 이것에 낯선 이들은 토종 호두쯤으로 이해하면 된다.

나는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사는데 추자를 얻는 곳은 광주천 둔치이다. 운암동의 광주천 둔치에 가면 물가를 따라 가래나무들이 열 그루 가까이 서 있다. 이 나무들은 사람이 심은 게 아니다. 추자는 물에 흘러가다가 물가에서 싹을 틔운다. 그러니까 운암동의 광주천 둔치 가래나무는 무등산에서 내려온 씨앗이 싹 터서 자란 나무들이다.

손안에다 쥐고 주무르기에 호두는 두 알이 적당하지만 추자는 작아서 세 알이 그러하다. 세 알을 주무르면 호두 두 알보다는 더 부드러운 소리가 난다.

광주천 둔치에서 가을에 내가 얻는 추자는 수백 개에 이른다. 나는 이걸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서울의 지인들에게도 보낸다. 광주천 둔치에서 나온 거라는 설명과 함께 손을 활기차게 만드는 데 쓰고 내년 봄에는 땅에다 심으라고 부탁한다.

추자를 여기저기에다 나눠주고 나면 겨울이 온다. 나는 손안에다 추자를 굴리면서 광주천 둔치로 산책하러 나간다. 광주천이 광주 북구 운암동을 지날 때는 동에서 서로 흐른다. 동에서 서로 흐르고 그 폭이 이백 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파리의 센강과 닮았다.

파리는 별칭이 빛의 도시여서 광주의 별칭인 빛고을과 비슷하다. 인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자유를 위해 시민들이 분투해 왔다는 점에서도 역시나 광주와 비슷하고. 그래서인지 나는 파리에서 플라타너스를 만났을 때는 전남대와 조선대 교정의 플라타너스를 떠올렸다. 광주에서 마로니에를 만나면 륙상부르공원과 센강 유역의 마로니에를 떠올리고.

광주에는 곳곳에 마로니에가 있지만, 내가 자주 만나는 마로니에는 광주문화예술회관의 등나무 쉼터 옆에 있는 세 그루이다.

작년 가을에 나는 이 세 그루 마로니에 나무들 아래서 열매를 주웠다. 마로니에 열매는 호두처럼 겉껍질이 있고 그 안에 씨앗이 들어 있다. 마로니에 씨앗을 살펴보는 내게 어떤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물었다. "이거 먹어도 돼요?" 아주머니가 내민 비닐봉지에는 마로니에 열매가 그득했다.

"아주머니, 이건 마로니에 열매인데 독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파리로 가져가면 독이 없어져요. 이걸 꼭 드시고 싶으면 파리로 가져가세요."

내가 먹지 못한다고 에둘러 말했다는 걸 알았는지 아주머니는 비닐봉지에 든 마로니에 열매를 쏟아버렸다. 나는 그걸 주워 놓았다가 빈터에다 심었다.

'씨앗은 심어야 한다.' 이걸 나는 할머니한테 배웠다. 할머니는 시골에서 살 때는 텃밭을 가꾸셨는데 일년 내내 풍성했다. 상추, 배추, 아욱, 무, 고추, 유채, 당근……. 도시에서 살 때는 내버려진 빈터에다 호박이며 들깨를 심었다.

나 역시 집 근처에서 빈터를 만나면 씨앗을 심는다. 이런 나를 보고 어떤 작가들은 그런 짓은 그만두고 여행을 가자고 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면서 미리 여행지를 알아 두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인다.

세상에는 많이 알아서 많이 본다는 이들은 흔하다. 하지만 보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이 도시를 조금이라도 더 활기차고 아름답게 가꾸려면 꽃씨를 심어야 하는 것이다. 새해에도 나는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계속 씨앗을 심을 참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떠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행한 만큼 바뀐다.'

社說

'전남 세계 도자기 엑스포' 차별화가 관건이다

전남 중서부권은 예로부터 도자기 문화가 꽃을 피웠던 지역이다. 고려청자의 명맥을 이어 온 강진, 우리나라 최초의 시유(施釉: 유약을 바름) 도기 발상지인 영암, 조선 초 분청사기 생산지 무안, 근대 생활 자기가 본격 생산된 목포가 그 중심에 있다. 지금도 이들 시군에서는 국내 생활 자기의 60%가 생산되며, 종사자나 매출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럼에도 경기도와 비교하면 인지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네 개 시군이 맞손을 잡았다. 흩어져 있는 전통의 도자 생산지를 하나의 벨트로 묶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자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관광 상품화를 추진, 지역 경제 발전을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그 첫걸음으로 전남의 도자 역사와 자산을 한눈에 보여 주는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5일에는 전남도·광주전남연구원과 함께 포럼을 여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 강진군 등은 오는 8월까지 기본계획서를 작성해 전남도에 제출하고 기재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타당성 조사를 받을 계획이다.

정부 승인이 완료되면 오는 2025년 150억 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제1회 전남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개최, 국내외 관람객 150만 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생활 자기·청자·도기·분청사기 등에서 강점을 지닌 이들 시군이 연계할 경우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그동안 도자기 축제와 엑스포를 꾸준히 열어 온 경기도 이천에 비해 주목도가 낮은 점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결국 전국 최대의 도자 산업 중심지로서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관람객의 이목을 끌 혁신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성공 개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과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다. 전남도도 엑스포 개최 계획의 정부 심사 통과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전폭 지원해야 할 것이다.

연이은 버스운행 중단, 주민 불편 최소화해야

광주·전남 지역에서 버스는 '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한다. 광주시의 경우 2021년 기준 수송 분담률은 버스(26.2%), 택시(13.7%), 지하철(3.3%) 순으로 승용차(49.1%)를 제외하면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최근 연료비 급등과 이용객 감소에 따른 적자 운행으로 버스 운행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평지·봉정 마을 주민들은 그제 광산구청 앞에서 운행 중단 중인 720-1번 마을버스 배차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버스를 운영하는 민간업체는 한 달 전 매년 6000만~8000만 원에 이르는 재정 적자와 한 명뿐인 운전원의 부재를 이유로 3개월간 휴업 신고를 한 상태이다. 버스 이용자도 코로나19를 전후해 하루 120명에서 절반 수준인 50~60명으로 줄어들었다.

광주시 남구 진월동 인근 주민 400여 명도 최근 나주 999번 버스의 노선을 증설해 달라는 민원을 광주시에 제기했다. 버스업체 또한 연료비 인상과 버스 이용객 감소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려면 버스의 광주 구간 승강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버스업체는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쉽지 않다. 마을버스 운행 구간에 시내버스를 투입하기 어려운 데다 시내버스 노선이 포화 상태여서 섣부르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포에서는 시민단체가 운행 중단된 버스회사 대표를 보조금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여건이 어렵지만 지자체와 버스회사가 머리를 맞대고 버스 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버스회사는 지자체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먼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도 '공익' 측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지원 방법을 찾아야 한다. 주민들이 더 이상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아이젠하워 매트릭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복잡한 현안을 풀어 가는 탁월한 일 처리로 유명했다. 그는 한 대학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 "나에게는 늘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급한 것과 중요한 것. 그런데 급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급하지 않다."

이율배반적인 이 말은 '긴급성'과 '중요성'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급한 일부터 선택한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의 가치가 훨씬 클 때도 마찬가지다. 경영학 전문가들은 선택의 순간에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생각의 도구를 만들었다. 이른바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다. 일을 '급하고 중요한 일'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등 네 개 그룹으로 나눠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경영학에선 아이젠하워의 일 처리 방식처럼 뒤의 두 그룹은 과감히 지워 버릴 것을 권한다. 핵심은 '급하고 중요한 일'과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에 있다. 스티븐 코비는 자신의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권하고 있다. 리더라면 후자에 더 큰 관심을 쏟아야 그 조직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강조하지 않더라고 모두가 알아서 챙기지만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은 소명감 있는 리더가 아니면 아무도 챙기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바둑 비법을 담은 '위기십결'(圍棋十訣)에도 '사소취대'(捨小取大)가 있다. 사소한 것은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는 뜻으로 '하수는 급한 곳을 틀어막는 데 급급하지만 고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중요한 곳에 돌을 둔다'는 의미다.

한 해 계획을 세우는 요즘, 개인이든 사회 지도층이든 한 번쯤 새겨 볼 말이다. 정책을 입안하는 정치인이나 실행하는 자치단체장이라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 소멸 해법 같은 중요하지만 어렵고 성과도 바로 나오지 않는 문제는 피해 가려는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 책임 있는 결정이 절실한 때다.

/장필수 사회담당 편집국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